

Vol. **61**
2019/10

MONTHLY **KOFA**

코파의

칭

Tel. 021-3002-9091 E-mail : indokofa@gmail.com
Add : Jl. Imam Bonjol No. 75 Cibodas - Tangerang



KOFA 제인니한국신발협의회
KOREA FOOTWEAR ASSOCIATION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46주년... “신남방정책 핵심 파트너”

양국 관계 점검하는 콘퍼런스...다방면 협력 의지 확인



▲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46주년...양자 관계 콘퍼런스

한국과 인도네시아 수교 46주년인 18일 자카르타에서 양국 관계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으로 점검하고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콘퍼런스가 열렸다.

김창범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는 “인도네시아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해 신남방정책을 처음 선포한 곳이자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달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인니 관계의 청사진을 고민하는 오늘 자리가 시

의적절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우마르 하디 주한국 인도네시아 대사는 “한국-인도네시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양국은 연내 CEPA 타결을 목표로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및 총칙의 6개 분야로 나눠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국가 중 한국의 2대 교역국(2018년 교역액 200억 달러)이며, 자

원이 풍부하고 젊은 인구가 많아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꼽힌다.

하디 대사는 “인도네시아의 한국 수출 30%를 석탄이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양국 정상은 2017년에 선언한 2022년까지 300억 달러 교역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이르 랑가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은 이날 콘퍼런스에서 양국의 교역과 투자 현황을 발표하고, 조코위 2기 정부가 인적자원 개발과 해외투자 유치를 주요 목표로 설정했음을 설명했다.

그는 “투자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노동집약적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세금 감면과 노동시장 개혁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서 리잘 아판디 투크만 경제조정부 차관은 한국의 경제 급성장 요인으로 ▲ 수출 장려 ▲ 비즈니스 친

화적 환경 ▲ 기술개발과 혁신을 위한 노력 ▲ 인적자원 개발 투자 등 네 가지를 꼽았다.

항공숙박예약 현지 유명 업체인 ‘트래블로카’ 데니스 무하맛 마케팅 상무는 “K-팝과 K-푸드 등 한류 인기가 대단하다”며 “올해 인도네시아 관광객이 방문한 국가 중 한국이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북한과 1964

년에 먼저 수교했고, 한국과는 1973년9월 18일에 수교했다.

다르모수마르토 국장은 “인도네시아는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며 “항상 한반도 문제와 지역안보에 관심을 두고 있고,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남북 대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리용남 북한 내각 부총리가 함께 참석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연합뉴스]

조코위 대통령, 개정된 KPK 법 대체할 정부령 공포 준비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통칭 조코위) 대통령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패방지위원회(KPK) 법 ‘2002년 제30호’ 개정법에 대해 동법을 대체할 정부령(PERPPU)을 제출할 준비하고 있다.

현지 매체 뎀보의 지난 27일 보도에 따르면, 프라텍노(Pratikno) 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PERPPU의 원안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



▲ 조코위 대통령과 프라 노 정부 장관

했다. 이어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며칠 이내에 개정된 KPK 법을 대체할 PERPPU를 공포할 태세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개정된 KPK 법이 통과된 후 각지에서 반대 시위가 발생함에 따라 PERPPU의 공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PK 법 개정과 관련하여 “각 방면에서 PERPPU의 공포 등 다양한 의견을 받았다”면서 “즉시 내용을 검토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공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코위 대통령은 과거에 PERPPU에 대해 “비상 사태를 제외하고 공포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印尼 섬유협회, 정부에 세금 우대 및 성장 계획 요구

인도네시아 섬유업체협회(API)는 17일 조코 위도도(통칭 조코위) 대통령과 회담하고 명확한 산업 지원 계획의 수립과 현지 원재료를 사용하는 기업에 우대 정책을 부여하는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동일자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API 아데 회장은 대통령과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 대해 수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VAT)를 면제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도 가능하지 않나”며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합성섬유생산자협회(Apsyfi)의 한 관계자는 회담에서 섬유 산업의 상류에서 하류 산업까지 포괄적 성장을 목표로 한 장기 전



략 수립을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20개년 계획이 바람직하며, 더욱 투자가 필요하다”고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아데 회장은 이 밖에도 무역부 상여거래감시위원회(KPPI)에 대해 상류 제품에서 최종 제품까지 포괄적으로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르랑가 하르파르토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은 수입 면화에 대한 VAT를 면제할 것이며, 미중 무역 마찰로 중국에서 공장이 이전되는 것을 염두해 중고 섬유 가공 장비의 수입에 대한 절차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HKI PT.HANJIN KONSTRUKSI INDONESIA
HUJ PT.HANJIN INDONESIA JAYA

고객의 미래를 함께 건설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 건설 / 토목

Jl. Modern Industry III/4 Kawasan Industry Modern Cikande RT 000, RW 000 Desa / Kel. Nambo Ilik Kec. Kibin Serang Banten

Tel : (0254) 402323 6 Fax : (0254) 402327

Email : pthanjin@hanjinind.co.id

www.hanjinpower.com

학생 시위 다시 격화 ... 군경, 최루탄 · 물대포 대응 형법 · 반부패법 개정 반대 ... 수천 명 의회 앞 시위



▲ 시위 진압 경찰 2019.9.30 [사진: 경찰청 트위터]

인도네시아 학생이 주도하는 형법 및 부패방지법 개정 반대 시위가 다시 격화됐다고 AP통신 등 외신과 현지 매체가 1일 보도했다.

학생 시위대 수천 명은 전날 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타이어에 불을 지르고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며 격렬하게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사회 운동가, 노조원까지 포함됐으며 이들은 무리를 지어 국회의사당 쪽 진출을 시도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이에 2만명에 이르는 군경은



▲ 자카르타 시위 진압 현장 2019.9.30. [KompasTV 캡처]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며 시위대에 대응했다.

이 같은 시위는 이날 서자바의 반둥, 술라웨시섬의 마카사르 등 다른 주요 도시에서도 발생했다.

지난달 하순부터 시작된 이번 시위는 지난 주말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가 이날

부터 다시 격화됐다.

시위가 다시 불붙은 것은 부패방지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킨 의회가 이날 회기를 마치게 되자 의회에 항의하기 위해 학생들이 다시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앞서 인도네시아 의회는 지난달 17일 반부패위원회

(KPK)의 독립성과 권한을 약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반부패위원회 조사관을 경찰 등 공무원이 파견 근무 하도록 하고, 부패 수사를 위해 영장 없이 도청하는 권한을 제한한다.

학생과 시민들은 국회의원들이 반부패위의 힘의 빼기 위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반발했다.

형법 개정안도 비난의 대상이다. 형법 개정안은 결혼한 부부 이외의 ‘혼외 성관계’를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동거도 불법으로 규정한다.

기존 형법은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혼외성관계를 맺은 경우만 간통죄로 처벌했지만, 보수 성향 무슬림 단체들은 혼전 성관계까지 전면 불법화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낙태죄와 대통령 모욕죄 등도 도마위에 올랐다.

의회는 당초 이번 회기에서 형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으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다음 회기로 넘겨 달라고 요청, 이날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시위대의 불만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시위대는 대통령에게 개정된 반부패법을 대체할 수 있는 정부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학생 라마는 뉴욕타임스에 “대통령은 연기하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취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외신은 최근 시위가 수하르토 대통령을 하야시킨 1998년 시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시위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이번 시위 도중 3명이상이 숨졌고 수백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인니 조코위 2기 정부 내달 출범... 韓 기업들 투자 모색

재인니 코참 세미나에 130여명 참석...” 정보가 경쟁력”

재선에 승리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2기 정부가 내달 20일 출범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모색하고 나섰다.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이하 코참)와 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는 2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간다리아 셰라톤호텔에서 ‘인니 진출 우리기업 투자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건설사부터 식품, 화장품 업체에 이르기까지 한인 130여명이 참석해 인니 새 정부의 경제 전망

과 유망 투자 분야, 진출전략에 관심을 보였다.

송창근 재인니 코참 회장은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경쟁력”이라며 “조코위 대통령이 앞으로 5년간 수도 이전 등 투자유치와 경제성장을 위해 강력한 리더십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안다’가 아니라 이 나라 법을 잘 알고, 준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미래에셋대우 심태용 이사는 “인도네시아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칼리만탄(보르네오섬)으로 이전하는 정책에는 경기 부양 의도가 내재해 있다”고 말했다.

심 이사는 “막대한 개발사업에는 노동 인력이 필요하고, 이들의 소득이 늘면 자연스러운 경기 부양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연 인니 국가가 수도 이전을 쉽게 동의할지에는 의문이 있다”며 “의원들이 자카르타에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수도 이전 예산이 너무 크다 보니 조달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마냥 기대감을 갖기에는 불확실성이 많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그린 네이처 팜의 임준환 대표는 ‘할랄 시장의 이해와 인증 및 진출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임 대표는 “인도네시아의 할랄 시장규모는 작년 기준 1천810억 달러로 세계 최대 시장”이라며 “인니 할랄 시장 공략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 인니 할랄 인증을 따르는 추세”라고 중요성을 설명했다. 재인니 코참은 11월 16일에는 한인 기업들을 위해 ‘수도 이전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LIGHT+
The Solutions of LED

**인니 현지 생산
LED 조명 가성비 최고
품질 완벽보장**



LED Module Light SSM



LED Street Light SSE



Highbay UFO



LED TUBE T8

한국부품을 사용해 수입품에 비해 가성비 극대화
인니 판매를 위한 SNI, TKDN, SUCOFINDO, ISO9001등 완벽한 인허가
적정 재고보유로 소량 및 대량주문에도 정확한 공급가능
현장 맞춤형 특수스펙제작 및 품질보증과 신속한 A/S



PT. Surya Citra Teknik Cemerlang (LIGHT+)

JL. Raya Narogong Pangkalan 1B, Bantar Gebang, Bekasi 17151

TELP : (021) 8262 7380 Fax : (021) 8263 4261

한국인 상담 : 0816 857 404 Email : sungleejkt@gmail.com

인도네시아, 외국인 근로자(TKA) 고용 확대 부문 발표



인도네시아 노동인력부(Kemnaker)는 외국인 근로자(TKA)의 고용 가능 18개 부문을 인력부장관령(Kepmenaker 228호)으로 발표했다. 18개 부문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설 Construction
2. 부동산 Real Estate
3. 교육 Education
4. 가공산업 Processing Industry
5. 수질관리, 폐수관리, 폐기물관리 및 재활용, 고정활동 Water Management, Waste Water Management, Waste Management and Recycling, and Remediation Activities
6. 교통과 창고 Transportation and Warehousing
7. 예술, 엔터테인먼트 및 레크리에이션 Arts, Entertainment and Recreation
8. 숙박 및 식음료의 제공 Provision of Accommodation and Provision of Food and Beverage
9. 농업, 임업, 수산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10. 옵션 권한이 없는 임대 및 리스, 고용, 여행사 및 기타 비즈니스 지원 Rental and Leasing Activities without Option Rights, Employment, Travel Agencies, and Other Business Supports

11. 금융 및 보험 활동 Financial and Insurance Activities
 12. 보건활동 및 사회활동 Human Health Activities and Social Activities
 13. 정보통신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14. 채굴과 채석 Mining and Quarrying
 15. 전기, 가스, 증기/온수/냉기 조달 Procurement of Electricity, Gas, Steam / Hot Water, and Cold Air
 16. 도소매 무역, 자동차 및 오토바이 수리 및 정비 Wholesale and retail trade, repair and maintenance of cars and motorbikes
 17. 기타 서비스 활동 Other Service Activities
 18. 전문, 과학 및 기술 활동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 건설 부문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채용 가능 직책은 IT 시스템 관리자이며, 부동산 부문은 마케팅 전문 총지배인, 교육 부문은 고등학교 선생님 및 교장 등이다.
- 그 이외의 부문 중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가능 직책은 전문 관리자(Expert manager), 전문가(specialist), 어드바이저(Advisor) 등이다.

조기조 교수의 경제산책

전자증권 이야기

증권(securities)은 유가증권(有價證券)을 줄인 말로 대부분 주식(株式)과 채권(債券)이다. 채권은 국·공채(國·公債)와 사채(社債)가 있다. 기업은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증권시장에서 국민들이 믿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뽑힌 기업을 상장(上場)법인이라 한다. 증권시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증권을 매매하므로 주주(주식의 소유주)나 채권주가 빈번히 바뀌게 되어 실물 증권을 교환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증권의 예약과 거래자금의 결제를 도와주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따로 있다. 주식은 한 장의 액면가액이 500원인 경우가 많아 500만원이면 1만장이 된다. 자본금 1억으로 회사를 설립하려면 주식 20만장을 발행해야 하는 것이다. 수시로 주식이 거래되는데 주주의 명부를 어떻게 관리하겠는가?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모든 증권 사무를 처리하는 방식을 전자증권제도라 한다. 1983년에 덴마크에서 먼저 시작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독일, 오스트리아, 한국을 제외한 33개국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한다. 정보기술에 앞선 나라에서 뜸 들이는데 너무 시간이 흘렀다.

증권 시장을 스탁 마켓(stock market)이라고 한다. (가축시장은 아니다.) 증권은 자산이고 그래서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 있으며 일정 시점의 기업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니 정태적, 저장(貯量; stock)이라고 본 것이다. 기업에 대한 일정기간의 손익을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의 내용은 동태적, 유량(流量; flow)인 것이다. 새로 저장과 유량의 관계를 보는 재무상태변동표가 중요한 재무제표로

떠올랐다.

지폐를 보면 한국은행권이라고 적혀 있다. 권(券)은 책이나 종이 등을 세는 단위이다. 증권(證券)은 증빙이 되는 종이, 증서인 것이다. 주화를 보면 권(券)이라는 글자가 없다. 종이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종이도 금속도 아닌 디지털 코인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하나인 비트 코인도 전자화폐(디지털 화폐)이다. 증권이 이제 종이가 아닌 전자적으로만 존재하게 되니 증권이라 불러도 될는지 모르겠다.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번거로운 잔돈 문제가 해결됐다. 1원짜리, 10원짜리, 50원짜리 주화는 그 쓰임이 사실상 사라졌다. 주조 비용이 액면가보다 더 든다. 주머니 속에서 덜렁거리다 잃어버리기도 하는 동전을 모으던 돼지 저금통도 찾아보기가 어렵다. 버스나 지하철, 커피 한잔도 현금 내는 사람이 드물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공동망을 이용한 결제가 증가하고 있고 여음이나 수표의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 왜 그럴까? 불편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거래에서는 거래 당사자가 직접 대금 수수를 하지 않아야 안전하다. 제 3자가 구매자의 돈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판매자가 보낸 상품이 제대로 전달되어 구매자가 구매의사를 밝힐 때 대금을 전해주는 방식이다. 이를 에스크로(escrow) 서비스라고 한다. 현금을 사용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다.

증권투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보유한 기업이 성장하거나 많은 수익을 내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서 증권의 가격이 오르고 따라서 배당금이나 양도차익(capital gain)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에서 파생한 금융상품도 모체는 결국 주식과 채권인데 변수는 금리와 환율이다. 확정이자를 주는 채권은 발행일의 금리가 중



조 기 조 교수

요한데 전자증권이라야 당일의 금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 전자증권제도로 실물 채권이 사라지면서 콜옵션이나 풋옵션의 행사도 자유롭게 된다. 결국에 투자자에게 편리함을 주되 불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담채라는 김치 냉장고가 나와, 늦가을 감장해서 땅을 파고 김치독을 묻던 일이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얼리지 않고 저온에 보관하니 1년을 두어도 시지 않고 그대로다. 이런 담채에 김치만 담는 것이 아니란다. 5만 원짜리나 슈퍼노트(100불)를 차곡차곡 쌓아두면 그만이란단다. 그런데 전자증권을 넘어 전자화폐가 쓰인다면 그럴 일도 없어질 것이다. 어디에 저장하냐고? 블록체인이 답이다. 돈이 상품정보처럼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옛날 옛적에 사람들이 신사임당의 얼굴이 그려진 종이를 들고 가면 물건을 주었다단다. 그 이전엔 조개껍데기를 가져가도 준 적이 있었지.....

조기조(曹基祚 Kyocho Jo)
경남대학교에서 30여 년간의 교수직을 마치고 명예교수로 있다. Korean Times of Utah에서 오래도록 번역, 칼럼을 써 왔다. 최근에 '스마트폰 100배 활용하기'를 내었다.(공저)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비상근)
kjcho@uok.ac.kr
(82) 10-9080-2449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실크로드 디자인 연구소는 코파의 힘, 봉제협회 코가지, 미디어 코리아, 건설신문 창조를 발행 해 왔고 기업 CI, 홍보용 카달로그, 북 디자인의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 해 왔습니다. 이제 직접 인쇄공정을 수행 해 낼 수 있는 설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늦각이 출발이지만 항상 곁에서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런 제품들을 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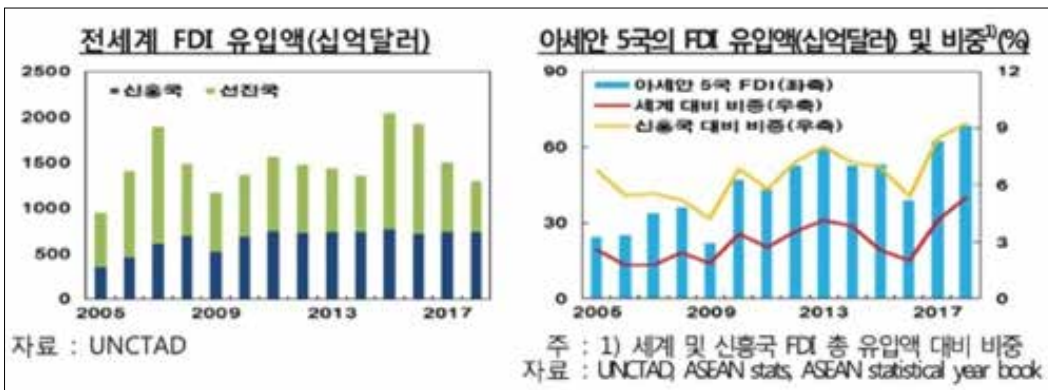
카달로그 / 도서출판 / 브로슈어 /스티커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고객의 마음을 훑치겠습니다!



“글로벌 기업 생산거점 중국 → 아세안 이동중...한국도 대응해야”



▲ 아세안 5국 FDI 유입액 추이 ※ 자료: 한국은행

한은 보고서 “중국 수출의
존도 낮아지는 긍정 효과도”
글로벌 기업의 생산거점이
중국에서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주요 5
개국으로 옮겨가는 추세에 맞
춰 한국도 중장기적인 관점에
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은행이 22일 제언

했다.
한은 조사국은 이날 해외경
제 포커스’에 게재한 ‘아
세안 5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FDI) 유입 배경과 전망 및 시
사점’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후 아세안 5국이 높
은 성장률을 보인 데는 외국
인 직접투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
아·말레이시아·태국·필
리핀·베트남 등 아세안 5개
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액
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337억달러에서 지난해 686
억달러로 갑절로 늘었다.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 유

입액에서 아세안 5국이 차지
하는 비중은 2009년 1.9%에
서 지난해 5.3%로 상승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류 속
에서도 이들 국가로의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증가한 것이다.
2016~2018년 중 투자금액
비중을 투자 실행 국가별로
보면 싱가포르(26.3%), 일본
(22.5%), 홍콩(10.7%), 중국
(7.3%) 순으로 많았다. 한국
(7.1%)은 그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중국이 담당해
왔던 글로벌 생산거점의 역
할이 향후 아세안 5국으로 이
전되는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
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최근 심화하는 미중
무역분쟁도 아세안 5국으로
의 직접투자 유입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역내 분업체
계에서 아세안 5국의 역
할이 강화되고 이들 국가
의 내수 규모도 커질 것
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
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적
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기업의
생산거점이 5개국으로
이전되는 구조 전환 과정
에서 한국 기업이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경우 중국에
의 수출의존도가 낮아지
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
였다.

[연합뉴스]



한국 점유율 1위!

한신 에어 콤프레셔

콤프레셔하면 한신입니다!



한신 신제품 출시

1. AT 시리즈:
기존 인버터보다 **4%** 더 에너지절약 가능한 모델
2. GRH5G 시리즈:
냉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 **10% DOWN!**
3. HBH 시리즈: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담당 / 한상윤 과장 : 0822 9999 1447
TANGERANG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담당 / 정연오 이사 : 0815 1938 0006

JEPARA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맥킨지 “인니, 자동화로 없어지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 생긴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기업이 향후 10년 간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를 추진하더라도 없어지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인들이 새로운 일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새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McKinsey & Company)는 전날 발표한 ‘인도네시아에서 자동화와 노동의 미래: 실직, 고용 증가, 고용 변화’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2030년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 2,300만 개가 없어지는 반면, 새로운 일자리 2,700만~4,400만 개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또 새로 생기는 일자리 중 1,000만 개는 새로운 유형의 직업이 될 것이다. 이 보고서는 자동화될 직종으로 법률 지원, 기계 운영, 급여계산, 거래처리 등을 꼽았다.

반면, 건설노동자 같은 예측 불가능한 신체 활동, 영업 사원 같은 대면 서비스, 예술가와 과학자 등 전문 지식, CEO나 프로젝트 관리자 같은 인력을 관리하고 개발하는 직업은 자동화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맥킨지 인도네시아의 경영 파트너 필리아 위보워는 25일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사람을 계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은

매우 강력해야 한다. 기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한다”라고 말했다.

자동화는 인도네시아에서 핫토픽으로, 지난해 조코위도 대통령직 인수식에서 산업 디지털화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인들은 인도네시아에서 뿌리 깊은 기술 격차를 불평하면서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디지털화에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 우려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월 기준으로 졸업 후 바로 취업하게 되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실업률(TPT)은 8.63%로 각급 학교 졸업자 중 가장 높았다. 대졸 실업률은 6.24%, 초등학교 졸업 이하 실업률은 2.65%였다. 평균 실업률은 5.01%였다. 이는 노동자들이 미래 인력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기술 취득이 어렵다는 의미다.

미래의 인재는 단순한 기능을 가진 인력이 아니라, 사람 간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인재를 기업이 필요로 할 것이다.

맥킨지는 800개 직종에 관련된 2,000개의 업무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는 미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

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기업도 지금부터 업무 변화로 영향을 받게 될 사람들을 위한 장기학습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맥킨지는 이직하는데 필요한 복합적인 기술을 습득하도록 경력자를 재교육하는 일이 점점 더 중요해지겠지만, 실제로 개인이 생애 내내 새로운 기술을 배우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논평했다.

앞으로 신기술 도입과 고용이 증가할 분야로, 맥킨지는 숙박, 음식, 교육 등을 포함한 건강관리와 건설, 제조업, 소매유통, 서비스 등 업종을 꼽았다.

맥킨지는 “새로운 노동 수요는 소득 증가와 인프라 지출 증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서에 썼다.

조코위 정부는 인프라 개발과 복지 지출을 늘리고 제조업을 육성하고 있다. 또 인도네시아에서 개인소득 증가는 소매유통업 그 가운데서 전자상거래를 촉진할 방침이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가 이미 국가 취업 시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대형 이커머스 포피피디어는 400만 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중 다수는 사업을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다.

[데일리인도네시아]

대만무역발전협회, 대만 기업들 중부자바주에 1.7억 달러 투자 계획



대만 정부계 무역진흥기관 대만무역발전협회(TAITRA)에 따르면 대만 기업이 인도네시아 끈달 공단에 1억 7,000만 달러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9월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제임스 TAITRA 이사장은 “많은 대만 기업이 중부자바주에 투자해 왔다. 투자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중부자바주 정부와 협력이 양국 관계의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제2 띠캄벡 고속도로서 대형 트럭의 통행 금지 검토



바수끼 하디물요노(Basuki Hadimuljono) 인도네시아 공공사업·국민주택부 장관은 지난 25일 자카르타와 동부의 공업지역을 연결하는 띠캄벡 고속도로의 고가도로(제2 띠캄벡 고속도로)에서 실시하고 있는 하중 테스트에서 1종(승용차, 소형 버스, 소형 트럭)과 2종(2축 트럭)만 통행을 허용하고, 3종(3축 트럭)~5종(5축 트럭)인 대형 트럭의 통행은 금지할 생각을 표명했다.

간자르 프라노워 중부자바주지사는 “중부자바주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 외에도 직업학교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점도 성공 요인 중 하나이다”라며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한다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에 따르면 2분기(4~6월) 중부자바주 해외직접투자(FDI)는 전국 34개 주 중 서부자바주와 자카르타특별주에 이어 3위였다. 사업 건수는 508건으로, 총 투자 금액은 7억 3,290만 달러였다.

공공사업·국민주택부의 고속도로통제청(BPJT)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2 띠캄벡 고속도로가 개통될 예정인 11월에 트럭 통행 규제에 대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3~5종의 트럭 통행을 영구적으로 금지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바수끼 장관은 대형 트럭에 대해 “고가도로에 들어갈 때 오르막에서 속도가 떨어지고 정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통행을 금지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행 시험은 지난 23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40톤의 화물을 실은 트럭 16대를 주행시키는 하중 시험을 구간별

SM 남선알미늄

(주)미안 ACE WINDOW

이지폴딩

현대홈도어

PT. KAISAR SINAR HISASH
www.siansash.co.id / www.pintulipat.id

우리는 窓門을 만듭니다!

시안의 窓門 전문가들이 직접 설계, 제작하고
책임시공을 약속합니다.



HEAD OFFICE / FACTORY JAKARTA

Jl. Pahlawan KM 1, Karang Asem Timur
Citeureup – Bogor 16810 Indonesia

Telp. : 021-8794-3838 Fax.: 021-8794-3839
Email : info@siansash.co.id

바로크 시대 (Baroque)

이 시대에는 대표적으로 3사람을 거론할 수가 있다.

1. Antonio Vivaldi (1678-1741) 63세 사계 (Four Seasons) 로 우리에게 친숙한 작곡가이며 당대의 Violin의 거장이었다.

봄 : 초록빛을 연상케 하는 즐거운 악상으로 전개

여름: 나른하고 권태로운 여름의 모습

가을: 수확의 축제에 들뜬 농민들의 쾌활한 모습

겨울: 얼음위를 걷는 사람들의 유머러스한 모습과 난로가에서 내다 본 바깥의 풍경

청년시절 사제가 되어 성직자와 음악가를 겸했으며 말년에 가난하게 살았고 비엔나에서 객사 하였다.

감상곡: 사계 전악장, 첼로 소나타 RV.47, 만돌린 협주곡 RV.425. * 성악곡 : 폭풍우 몰아치고 (Agitata Da Due Venti) * 조수미

2. Georg Friedrich Handel (1685-1759) 74세

대표적인 곡으로 The Messiah (구세주). 매우 종교적인 색채를 띤 오라트리오로 3시간의 연주시간

44번째 곡인 할렐루야 Hallelujah 는 성탄절이 되면 베토벤의 9번 합창 교향곡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는 곡이다.

1742년 런던에서 초연 당시 조지 2세 국왕이 참석하여 감격에 겨워 기립한 것이 시초가 되어 지금도 이 합창곡을 들을 때는 기립하는 것이 관습으로 되어 있다.

말년에 헨델은 영국으로 귀화하여 지금도 독일과 영국에서는 자기네들의 작곡가로 우기고 있다. 그런 이유로 그의 이름은 2가지로 표기 (영어, 독일어)

조지 1세 국왕의 뱃놀이를 위해 수상음악 Water Music 도 작곡하였다. 평생 독신으로 살다 사후에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 되었다.

3. 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 65세 * 음악의 아버지

바흐는 이태리에서 시작된 Baroque 음악을 헨델과 함께 완성 시켰다.

바흐 집안은 16세기 중반에서 18세기 말까지 250년 동안 50 여명의 음악가를 배출하여 그 가문이 유전학의 연구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 중에서 J.S. Bach 는 군계일학으로 음악사에서는 ‘대 바하’ 라는 애칭으로 그를 부르고 있다

그는 평생을 한번도 독일 땅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고 2명의 부인에게서 20명의 자녀를 두었다.

베토벤은 바하를 평하기를 ‘대양’ 이라고 했을 만큼 바흐가 음악계에 남긴 업적은 큰 바다에 비유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오늘날 그의 작품은 전 인류의 위대한 보물로 여겨지고 있고 미국에서 인류의 메시지를 담아 우주로 보낸 우주탐사선 보이저 2호에

바흐의 음악을 실어 보냈다고 할 정도다.

감상곡: Brandenburg 협주곡 1번-6번, 마태수난곡 BWV 244 (이 곡중에 나오는 유명한 곡이 찬송가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6번

BWV 는 바흐가 사용한 고유의 작품 번호. 모차르트는 사후에 연구가 괴헬 Kochel 이 그의 작품을 정리하여 K.V 혹은 K 로 사용하고 있고

슈베르트는 Deutsch No 라 하는 D를 사용하고 있다.

고전시대 (Classic)

서양음악사 8시대 중 중요한 시대 3시대를 꼽으면 바로크, 고전파, 낭만파 시대라 할 수 있다.

다시 2시대로 압축하면 고전파, 낭만파이고, 중요한 한시대만 꼽으라 하면 단연 고전 (Classic)파 시대라 할 수가 있다.

고전파 시대의 시작은 1750년 (바흐의 사망)에서 1827년 (베토벤의 사망) 사이 77년간 이다.

그 짧은 기간에 우리는 고전시대 3 거성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이라는 큰 선물을 받는다.

임철우의**손바닥 만한 서양음악 이야기 3,4**

을 받는다.

고전시대는 인간의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을 중요시 했던 시대라 할 수 있으며 그래서 3 거성의 곡들이 비슷한 색깔을 가진 작품들이 많은 이유라고도 할 수 있다 하루 24시간 지구의 어느 연주회에서든 이 세 거성의 작품이 연주되지 않을 때가 없다고 한다.

1. Franz Joseph Haydn (1732-1809) 77세 * 교향곡의 아버지

104곡 또는 108곡을 작곡했다고 한다.

목수 아버지와 백작집 가정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낙천가, 해학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Papa Haydn 이라고 불렀다 함.

교향곡 : 아침, 낮, 저녁, 슬픔, 고별, 기적, 군대, 시계, 런던, 곰, 암탉, 교장선생님, 철학자, 멍청이

현악4중주 : 새, 종달새, 산들바람, 면도칼, 개구리

감상곡 :

현악 4중주 No.62 Op.76 Emperor 2악장 이 곡은 독일국가로 불려지며 찬송가에도 수록되어 있다. (시몬성과 같은 교회), 오라트리오 천지창조

또 우리가 자주 듣는 시계 교향곡 2악장, 놀람 교향곡 2악장.

2. 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 35세 음악의 신동

젊은 나이 35세에 죽은 이 신동의 사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밝혀진 게 없지만

1. 영화 아마데우스에 나오는 궁정음악가 살리에르에 의한 독살설

2. 너무 어린 나이에 연주 여행을 자주 다닌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그리고 비엔나에 있는 모차르트의 무덤이 비어 있는 이유로는

1. 유족들이 장례비가 없어서 유기했다는 설

2. 후세 사람들이 그의 천재성을 연구하기 위해 두개골을 훔쳐 갔다는 설이 있다.

그는 살아 생전 작품번호를 붙이지 않고 사망. 앞서 언급한 데로 후에 모차르트 연구가 괴헬 Kochel 이 그의 이름 첫 글자를 따서 K 혹은 K.V로 붙여 줌

아이러니하게도 K. 626 (Requiem 진혼곡) 이 그의 마지막 작품이 되었음. 천연두를 앓은 얼굴 콤플렉스가 있어 사치, 낭비가 심했다고 한다.

감상곡 :

클라리넷 협주곡 K.622, Eine Kleine Nachtmusik, Rondo for piano & orchestra K.382,

Piano concerto 21번 2악장 K.467 (영화 엘비라 마디간의 주제곡), Piano concerto No.23 K.488 2악장,

오보에 협주곡, 호른 협주곡, 교향곡 40번 & 41번 (쥬피터), 작은 별 주제에 의한 변주곡, Divertimento (희유곡) K.334, Requiem K.626

몇년전에 나온 영화 왕의 연설 (The King's Speech) 에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1악장과 피가로의 결혼 서곡의 한 소절이 나오고

저 뒤로 가면 하이든의 현악 4중주 황제의 마지막 소절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베토벤의 교향곡 7번이 연설시 배경음악으로 나옵니다.

모차르트가 31살때, 17살인 베토벤의 연주를 듣고 ‘이 젊은이를 주목하라.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기준금리 석 달 연속 인하...5.50%→5.25%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이 19일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5.50%에서 5.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7월 18일 6.00%에서 5.75%로, 8월 22일 5.50%로 각각 0.2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석 달 연속해서 금리를 내렸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이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약 두 달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다시 인하하자 곧바로 금리

인하를 승인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여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 한 해 동안 총 1.75%포인트가 올랐다.

하지만, 올해 미·중 무역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

고, 석탄과 팜오일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약세를 보이며 경기가 둔화하자 금리를 세 차례 인하했다.

[연합뉴스]

카렌다 제작을 시작으로 2020(庚子年)년을 준비하세요!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2020

광개토에 카렌다 제작을 의뢰하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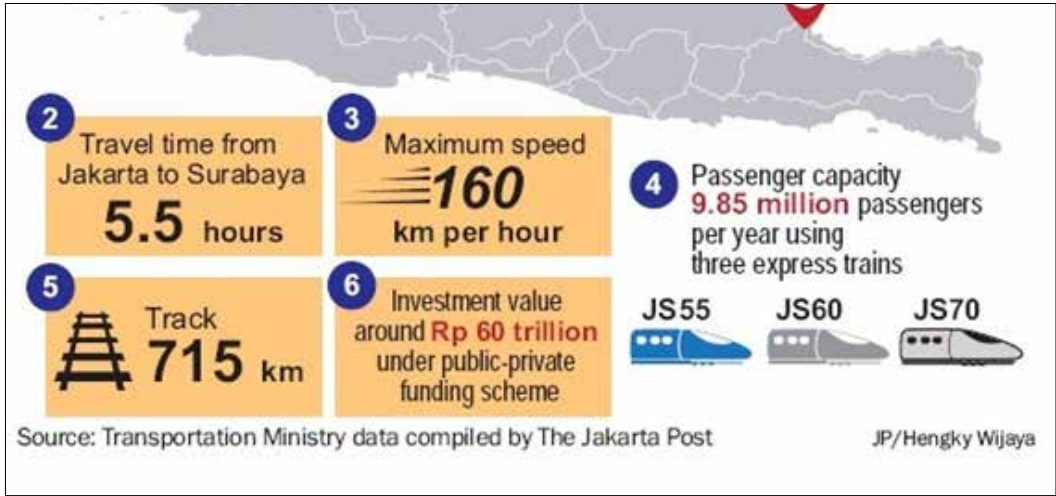
1. 탁상용, 벽걸이용 카렌다를 고객의 기호에 맞게 디자인, 제작해 드립니다.
2. 약 20만컷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무료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3. 촬영을 원할 경우 출장 촬영 가능합니다.
4. 귀사의 현장과 생산제품, 설비등의 이미지로 차별화된 제작 가능합니다.
5. 제작전 사전 디자인된 카렌다를 PDF로 먼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작 의뢰는 : 0858 9060 0962, 021 3002 9090 / 91 입니다



인니, 자카르타 ~ 수라바야 720km 준고속철 2025년 개통

5조원 공사 일본과 협상 타결...9시간→5시간30분 단축



▲ 자바섬 자카르타~수라바야 준고속철 연결 [자카르타포스트 캡처]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제2의 도시 수라바야까지 720km 구간에 준고속철이 달리게 된다.

부디 까르야 수마디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은 26일 “일본과 2년간 협상 끝에 자카르타~수라바야 준고속철 프

로젝트에 서명했다”며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고 자카르타포스트와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자카르타~수라바야 구간에는 현재 시속 80~90km 열차가 운행하는데, 시속 160km의 준고속철이 달리게 되면 소요시간이 9시간에서 5시간 30분으로 3시간 반 절약된다. 지난해 자카르타~수라바야 노선 여객기 이용객은 800만 명이며, 준고속철이 완성되면 이 중 12.4%가 철도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인도네시아와 일본은 자바섬의 특성에 맞게 해당 구간 선로에 표준궤보다 폭이 좁은 협궤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공사는 1단계로 자카르타~스마랑 436km, 2단계로 스마랑~수라바야 284km 구간으로 나눠 진행된다. 준고속철은 자카르타 망가라이역, 짜레본, 스마랑, 수라바야 등 4개 역을 잇는다.

해당 구간의 500여개 철도 건널목은 육교나 지하도로 바뀐다. 양국은 전체 공사에 60조 루피아(약 5조원)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4년에 자카르타~짜레본 219km 구간부터 개통하고, 2025년 수라바야까지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에서 제3의 도시 반둥까지 142km 구간 고속철도 사업은 중국에 맡겼다. 해당 구간에는 2021년부터 중국산 고속열차 ‘CR400AF’가 통상 시속 350km로 달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최초 ISO 8573-1 Class “0” 인증획득!

www.ekyungwon.co.kr

대한민국 콤프레샤의 역사

경원 콤프레샤

경원 콤프레샤는?

사용이 편리한 다기능 Full MICOM 장착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운전모드
대화가 가능한 운전소음
오일함량 2PPM 이하의 청정한 압축공기
주위온도 50C에서도 안정적 운전가능
경원의 모든제품 AS가능 (한국에서 구입한 제품도 가능) 및
주요부품, 소모품 상시보유

내 손안의 관리시스템- 경원 CMS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완벽한 해법, 경원 콤프레샤 모니터링 시스템

PC Version

운전상황 Monitoring

- 최대 15대까지 모니터링
- 상태 모니터링
 - 공기압력, 토출온도, 운전상태
 - 실시간 온도, 압력 확인
 - 과거 운전 이력 확인
 - 알람 실시간 문자메시지 발송
- 운전시간
 - 총 운전시간, 남은 유비보수 시간 확인
- 콤프레샤 관리보고서 출력
 - 가동율, 유지보수 시간, 가동 패턴
 - 에너지 유량 현황, 전년동기 전력, 유량 분석

PT. KYUNGWON CENTURY KORAIR

INDONESIA OFFICE

Jl. Raya Serang KM. 12 Desa Bunder
Cikupa-Tangerang
Telp : 021 5940 2605
김태봉 : +62 811 932 689
E-Mail : kimb160@gmail.com

JEPARA OFFICE

Ruko 1A Suudi RT. 04 RW. 01Desa Kali Pucang Wetan,
Kec. Welahan Jepara Jateng (Depan SMPN 1 Welahan)
Kode Pos 59464
Telp : 0291 751 2682

KOREA OFFICE

102 Dongil-Ro, Kwangjin-Gu
Seoul, Korea
Telp : +82 2 465 6308
Fax : +62 2 468 7202
E-Mail : dbkw2000@hanmail.net
http ://www.dbkw2000.com

가몬트, 신발 박람회 친환경 소재로 만든 제품 최초 출품



▲ W.L. Gore & Associates는 신발의 소재 패키지에 보호용 속성을 직접 포함시켰다.

아웃도어 카테고리나 운동화 카테고리가 지속적으로 통합되면서, 아웃도어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 가운데 한 곳이 꾸준히 신뢰도를 쌓고 있다. 바로, 방수 제품 최고 브랜드인 고어텍스가 최근 몇 년간 여러 가지 신상품을 개발해 기존의 주력 상품을 보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어텍스 서라운드(Gore-TexX Surround)는 발 밑 통기성을 높인 신상품으로써 에코와 로와 같은 아웃도어 브랜드의 상품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그리고 고어 플렉스(Gore-Flex)는 브룩스와 써코니 같은 주류 브랜드에서 사용했던 기술을 적용해 유연성을 높인 제품이다. 한편 2년 전, 고어텍스 모회사인 W.L. Gore & Associates는 디

자인이나 편안함, 무게 등의 속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방수 및 통기성이라는 기본적인 고어텍스의 특성을 전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상품 인비저블 핏(Invisible Fit)을 출시했다. “당사는 일반 신발처럼 느껴지고 기능할 수 있는 상품을 제작하길 원한다.”고 GTX 풋웨어의 Kirk Christensen 상품 전문가는 말했다. 전통적인 고어텍스 대신에 방수 기능을 추가한 인비저블 핏을 신발 소재 패키지에 균일하게 통합하고 풋웨어 어퍼와 결합했다. 이 같은 구성으로 전통적인 고어텍스 제품에 만연했던 디자인과 탄력성, 무게의 문제를 최소화했다. “인비저블 핏은 소비자들의 높은 기대감을 충족하고 디자인

이 흐트러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고어텍스의 여러 가지 특징을 한 번에 통합한 것”이라고 Christensen 상품 전문가는 말했다. 그리고 기존의 고어텍스 상품에 비해 건조 시간을 짧게 만들었으며 방수 기능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인비저블 핏은 아웃도어 운동화와 결합해 뉴발란스 880 GTX, 살로몬 센스 라이드 GTX, 머렐 노바 고어텍스 같은 모델로 출시됐다.

머렐의 Shaun Bohnsack 상품 관리이사는 머렐이 인비저블 핏 구성으로 크게 개선됐다고 말하며 머렐 “최고의 방수 상품”이자 “트레일 러닝 상품으로써 특별하게 제작됐다.”고 덧붙였다.

“인비저블 핏을 착용한 트레일 러너들은 탄력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착화감이 뛰어나고 통기성이 우수하며 땀이 났을 때 빠르게 건조시킬 수 있다.”고 Bohnsack 상품관리이사는 말했다.

Christensen 상품 전문가는 고어텍스와 협업하는 브랜드는 이미 인비저블 핏을 도입했거나 라인업에 이 획기적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발 중에 있다고 말했다.

“머렐과 나이키, 이노브-8 같은 브랜드들은 아웃도어로 진출할 때 신속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당사도 그에 맞춰야 한다.”고 Christensen 상품 전문가는 말했다. “당사는 인비저블 핏으로 전에 없었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 중에 있다.”

출처: Running Insight

한국신발피혁연구원 제12대 백운현 원장 취임



위공무원으로 퇴임했다.

백 원장은 공직 근무기간 시장·국방부장관 표창 및 홍조근정훈장(올해의 공무원 선정), 황조근정훈장(국가 사회 발전 유공) 등을 수훈하고 자서전 ‘인생여정 행로여정’을 출간했다.

백 원장은 취임사에서 “개성공단 재개 및 4차산업혁명 등 새로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연구원 개개인의 최선의 노력과 연구 역량을 함양으로 기술경쟁력 확보하고, 중앙정부, 부산시, 기업, 관련단체와 활발한 소통과 협력으로 신발·피혁산업과 국가발전에 초석이 되는 연구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축하를 통해 “국내 신발·피혁산업 핵심 연구기관으로서 부산신발 100년,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한국신발피혁연구원 신입 원장에 백운현(62) 전 국민권의위원회(부패방지) 부위원장(차관급)이 19일 취임했다.

임기는 2022년 9월 15일까지 3년 동안이다.

부산 당감동 한국신발피혁연구원원장은 신발·피혁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R&D)하고 이를 산업계에 지원 및 보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전문생산기술 연구기관이다.

백 원장은 행정고시(21회) 합격 후 공직에 몸담아 부산시 기획관리실장, 부산시장 정무특보, 청와대 대통령실 행정자치 비서관, 행정안전부 차관보, 한국해양대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차관급 고

KOFA 광고를 제안합니다.

KOFA에서는 소식지를 통해 신발관련 업체들의 영업과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1. 개요

주요대상 : 신발업체, 부품업체, 및 기타 관련업체
광고매체 : 코파소식지(월간)

특징

- 1) 소식지는 KOFA 전 회원사에 다이렉트 메일로 매월 발송되며 관련 회사 약 200여 업체 대표님과 그 직원 모두에게 매체 도달률 100%, 가독률 100%의 전문 소식지입니다.
- 2) 전달 하고자하는 정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홍보 할 수 있으므로 설득력이 높습니다.

2. 광고 상품안내

- 1) 연간(12회) 계약 혜택 : 20% 할인,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 2) 6개월(6회) 계약시 혜택 : 10% 할인,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3. 연락처 및 문의처

KOFA 사무국 : 021-3002-9091 (mr. kang) 0858-9060-0962

SunStar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한민국 대표 재봉기,자수기!

썬스타 인도네시아 직영법인

실속형 패턴출시

- 전화전 가마타입
- 가로300,세로 200 사이즈 (mm)
- Max Speed 2,200rpm

- ▶ FAST, ACCURATE SERVICE UP
- ▶ 재봉기 / 자수기 부품
- ▶ 보드수리 완벽구비!!!



신형패턴 SPS/R-3020H, 2010H

SunStar
SWF

Jl. Mahoni 1 Multiguna Niaga Lippo Cikarang No. 3, Sukaresmi
Cikarang Selatan Kab Bekasi - Jawa Barat, Indonesia
Telp. : +62 21 8990 4038 / 4037

인도네시아 총판 강현욱 이사

재봉기 오경환 팀장 001-62-821-4303-8822
자수기 강현욱 이사 001-62-858-8896-7825

okh@sunstar.co.kr
kevinkang1103@gmail.com

나이키부터 아디다스까지... 이번 주 출시될 최고 브랜드의 최고 스니커즈 9종

이번 주 가장 유명한 스니커즈 브랜드들에서 다양한 디자인의 상품을 출시한다.

이 중에는 리미티드 에디션과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제품 등이 포함돼 있어서 스니커즈 팬들의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나이키와 아디다스, 조던 브랜드와 뉴발란스 등 유명 브랜드에서 이번 주 선보이게 될 상품들이다.



▲ 사카이 x 나이키 LD와플

1. 사카이 x 나이키 LD와플
일본 패션 브랜드 사카이가 나이키 LD와플 스니커즈와 최초의 컬래버레이션을 실시해 섬세한 단색 계열 색상의 제품을 출시했다.



▲ “크림색”의 퍼렐 윌리엄스 x 아디다스 오리지널 Hu NMD

2. 퍼렐 윌리엄스 x 아디다스 NMD 후 나우 이즈 허 타임
아디다스와 퍼렐 윌리엄스가 “이제는 그녀의 시간 (Now Is Her Time)”이라는 캠페인과 함께 여성권을 기념하는 이벤트를 펼치면서 여기에 깔끔한 화이트 계열의 유명한 NMD Hu 상품 출시도 포함시켰다.



▲ 엔디피티드 x 나이키 코베 4 프로 트로 “블랙 맘바”

3. 엔디피티드 x 나이키 코베 4 프로트 “블랙 맘바”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의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스트리트 브랜드 엔디피티드와 나이키가 협업해 특별한 “블랙 맘바” 신발을 출시하고 브라이언트의 별명을 따서 상품명을 지었다.



▲ “오피티 옐로우” 색상의 나이키 어댑트 허라취

4. 나이키 어댑트 허라취
나이키는 클래식한 허라취에 어댑트 파워 레이싱 기술과 통기성이 뛰어난 어퍼를 적용해 모든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는 제품을 출시했다.



▲ 2019년 FIBA 컬렉션의 일환인 조던 4

5. 에어 조던 4 레트로 FIBA
조던 브랜드는 레드와 화이트, 블루 색상의 에어 조던 4를 출시했다. 이는 우연히도 올해 열리는 FIBA 월드컵 농구 토너먼트와 시기가 일치하게 됐다.



▲ 호텔 베컴 주니어의 나이키 에어 맥스 720 영 킹 오브 더 피플

6. 나이키 에어 맥스 720 OBJ ‘데저트 오어’
호텔 베컴 주니어의 최신작 나이키 에어 맥스 720 “데저트 오어” 스니커즈는 90년대 축구 선수들과 선수들이 필드에서 보여준 기량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출시한 제품이다.



▲아디다스 이지 부스트 700 V2 이너시아

7. 아디다스 이지 부스트 700 V2 이너시아
신상품 이지 부스트 700 V2 이너시아는 심플한 회색 메쉬 어퍼에 측면에는 시그니처인 형광 소재의 쏘리 스트라이프가 배치돼 있다. 그리고 부스트 미드솔과 고무 아웃솔을 장착했다.



▲키스 x 뉴발란스 998 샤크

8. 키스 x 뉴발란스 998 샤크
키스는 뉴발란스와 협업을 통해 2019년 가을 컬렉션에 프리미엄 소재의 돼지가죽 스웨이드를 사용한 어퍼와 깔끔한 네이비 블루 색상이 특징인 뉴발란스 998이 포함됐다.



▲리복 JJ III 프로 팩

9. 리복 JJ III 프로 팩
2019-20 NFL 시즌을 시작으로 휴스턴 텍사스의 디펜시브 엔드인 J.J. 와트는 태클에도 완벽한 리복 JJ III 프로 팩 스니커즈를 출시했다.

힐라코리아 사상 첫 매출 3兆 눈앞

힐라코리아의 올해 연간 매출이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최근 중국 합작사의 분식회계 논란에도 국내외 사업부의 실적 성장세가 뚜렷해 브랜드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미국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판매채널을 확대하면서 해외 사업부의 실적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의 힐라코리아의 올해 예상 매출은 3조 4948억원으로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지난해(2조 9546억원) 보다 18% 가량 성장한 수준이다.

영업이익은 4572억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할 전망이다.

손호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힐라코리아는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서 전 사업부문이 연말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힐라코리아는 2016년 브랜드 개편을 통해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한물간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타깃층을 1020세대로 정하고, 생산 시스템과 유통 방식을 재정비했다.

중국 진장시에 글로벌 소싱센터를 구축해 생산 단가를 낮춰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동시에 젊은층이 자주 찾는 편집숍과 온라인으로 유통망을 옮겼다.

그 결과 적자에 시달리던 힐라코리아는 2017년 흑자 전환에 성공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힐라코리아는 올해 상반기에만 매



출 1조7939억원, 영업이익은 2607억원을 거뒀다.

각각 전년 동기보다 22.27%, 29.98% 증가한 수치다.

업계는 힐라코리아가 상품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신발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합리적인 가격과 트렌디한 상품으로 1020세대에게 호평을 받으면서 올해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디다고 평가받았던 미국 지역에서 매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힐라코리아 미국 매출은 73.8% 급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27.8% 늘었다.

기존에 중저가 매장 위주로 입점했던 힐라가 작년 하반기부터 ‘꽃라케’, ‘피니시라인’ 등 중고가 판매채널을 확대하면서 고가 제품의 판매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안진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에서 고가 제품이 전체 신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까지 올라오며 이익률이 개선됐다”며 “향후 미국 고가 매장 추가 확대를 고려할 때 경쟁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No.1 보일러

삼호 보일러

소각 스팀 보일러

- 용량 : (0.5T/H~5.0T/H)×1.0Mpa
- 연료 : 석유 / 목재 / 종이 / 석탄

입형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0.1T/H~2.0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중유

특허번호 10-0870543 호

- 콘덴싱 보일러
- 횡형수관식 보일러
- 수관식 보일러
- 노통연관식 보일러
- 초소형노통연관식 보일러

- 무압관수식 보일러
- 진공온수 보일러
- 관류형 보일러
- 소용량입형연관식

인도네시아 공식 대리점

PT. HANSHIN AIR COMPANY

자카르타 : 유인대 Hp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Ruko Tataka Puri Blok C1 No. 25 Jl. Curug Raya Bitung Tangerang 15810
Tel. 021.5949.4000 / 5949.4222 Fax. 021.5949.4666

스 마 랑 : 정연오 Hp : 0815 1439 0006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스파이크화 판매 전략 6가지

러닝화 전문 매장이 크로스컨트리 및 트랙,
필드 마켓을 사로잡는 6가지 방법



#1: 제품을 눈에 띄게 만들어야 한다.

리테일 업체 디 폰드 애슬레틱스(Dick Pond Athletics)는 트랙 상품 구매자와 학교 구매자들을 사로잡기 위해 제품을 매장에 진열 판매하고 있다. 이 업체의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재고로 구비하고 있는 상품들을 세분해 보여주고 있어 누구든 쉽게 원하는 상품을 찾을 수 있게 만들었다.

“일반 현지 러닝화 매장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당사는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고 디 폰드의 짐 스튜어트는 말했다.

#2. 마케팅 도구를 확장해야 한다. 해든필드의 러닝코(RunningCo.)에서는 고객들이 스파이크화를 구입할 때마다 스파이크화 전용 가방을 나눠준다. 운영자인 데이브 웰쉬는 지역 학교에 맞는 색상으로 가방을 자체 제작했다.

“아이들이 거리를 돌아다닐 때마다 가방은 훌륭한 마케팅 도구가 되고 있다.” 고 스튜어트는 말했다.

#3. 회유책을 써야 한다. 인센티브로 팀 운동선수를 유인할 수 있다. 트랙 Shack(Track Shack)은 스

파이크화를 구입하는 운동선수들에게 10 ~ 15% 정도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웰쉬는 주요 학교 고객들에게는 쿠폰을 배포하고 있다. 그 외에, 디 폰드 애슬레틱스는 팀 bucks 프로그램(Team Bucks program)을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마케팅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4.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알아두어야 한다.

코치들은 경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다. 트랙 색은 지역 코치들에게 개인 알립장을 전달한 반면, 디 폰드 애슬레틱스는 미국 전역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코치들에게 인쇄물로 된 카탈로그를 전달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코치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믿어야 한다는 것” 이라고 웰쉬는 말했다. “학생 선수들은 코치들의 말을 듣기 때문이다.”

#5. 직원을 훈련시켜야 한다. 스파이크화 판매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직원들은 상품의 기술적 특징을 파악하고 제품 범위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스프린트 스파이크화는 긴 점프를 할 수 있도록 이중 기능이 있어야 하고 중거리 스파이크화는 다기능성이 있어야 한다.

#6.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웰쉬는 6년 전 매장을 다시 차리면서 운동선수들을 위한 스파이크화 테스트 공간을 만들고 벽돌 벽과 금속 마감재를 사용해 매장을 세련되게 꾸몄다. 그리고 5년 전에는 지하실을 개조해 코치들과 선수팀이 모일 수 있는 역동적이면서도 활기 찬 공간을 만들었다.

인도네시아 세제 개혁안... 체납자 처벌 규정도 완화



인도네시아 정부는 법인소득세(PPH)의 인하를 포함하여 대규모 세제 개혁의 일환으로 세금 미납자나 체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다.

9일자 비즈니스인도네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악의적이지 않은 체납자에 운정으로 납세 의식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연결시킨다는 방침이다.

인도네시아 재무부의 법안에 따르면 (1)연간 법인세 세무신고서(SPT)가 잘못 추정된 경우 (2)세금 신고가 접수되고 수정통지(SKPK)가 접수된 경우 (3)부가가치세(VAT) 과세 사업자(PKP)이면서 기한 내에 적절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PKP로 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4가지 경우에 대해 처벌 규정을 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1)의 경우 중앙은행(BI)의 정책 금리 값에 5%를 더해 12로 나눈 수, (2)는 정책 금리에 10%를 더해 12로 나눈 수를 각각 1개월 당 연체 세율로 한다. 현행 규정에서는 모두 미납액의 2%(최대 24개월)로 하고 있다. (3)과 (4)는 과세 표준액의 1%로 한다. (3)은 현행 규정에서는 2%다.

업계 전문가는 “현행 규정에서는 세금 미납자나 체납자에 대한 벌금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고서의 실수나 납세 지연은 그다지 국가의 손실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처벌 규정의 완화를 환영했다.

나이키 에어 맥스 97 “뉴스페이퍼” 출시

나이키가 최근 에어 맥스 97 “뉴스페이퍼”를 출시했다.



▲ 나이키 에어 맥스 97 “뉴스페이퍼”의 상단

나이키 측에서는 이 상품에 대해 많은 정보를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이 클래식한 러닝화는 흰색 가죽 어퍼가 특징이다. 세피아 톤의 90년대 신문 그래픽을 전면에 내세운 이 러닝화는 머드가드와 나이키 시그니처인 미니 크기의 스우시, 플렉스 맥스 에어 쿠션이 장착돼 있다. 그리고 인솔과 텅, 힐탭, 고무 소재의 아웃솔에는 블랙과 오렌지 색으로 액센트를 주고 있다.

이 제품은 1997년 출시된 이후 비슷한 디자인으로 다시 시장에 나오게 된 것이다.

나이키 에어 맥스 97 “뉴스페이퍼”는 현재 160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 나이키 에어 맥스 97 “뉴스페이퍼”



▲ 나이키 에어 맥스 97 “뉴스페이퍼”의 측면



▲ 나이키 에어 맥스 97 “뉴스페이퍼”의 뒤꿈치



▲ 나이키 에어 맥스 97 “뉴스페이퍼”의 아웃솔



▲ 나이키 에어 맥스 97 “뉴스페이퍼”의 측면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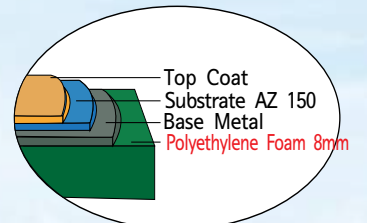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래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로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930mm
35mm
2. 25mm Trimdek
1040mm
25mm
3. 35mm Spandek
920mm
35mm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420mm
110mm
5. Boltless-Seaming Type 55mm
736mm
55mm
6. Genteng Metal (기와)
82mm
35mm
20mm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철학 담은 스마트 기술

스마트폰 앱으로 내 발 모양에 맞는, 원하는 디자인의 신발을 주문한다.

실시간으로 주문을 확인한 로봇은 사람 대신 원단을 자르고, 3D 프린터는 부속을 만들어 꿰매고 붙인다.

스타일, 깔창, 소재, 색깔, 심지어

산 전 과정에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적용돼 생산성과 품질, 고객만족도 등을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공장을 일컫는다.

제품 생산과 판매 과정에서 축적된 수십 만, 수백만 건에 이르는 빅데이터는 공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나침반이다.

뒤떨어진다.

부산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2014~2018년 전국에 구축된 스마트 팩토리는 7903개다.

이 가운데 부산지역 스마트 팩토리는 전체의 5.5%가량인 442개에 불과하다.

양적 불균형보다 우려스러운



어는 신발 끈까지 단 1명의 고객을 위한 완전 맞춤형 신발이 완성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5시간. 동일한 제품을 동남아 공장에서 만들려면 3주 이상이 소요된다.

글로벌 스포츠웨어 기업 아디다스가 독일 안스바흐에 건립한 스마트 신발공장 ‘스피드 팩토리’에 관한 이야기다.

생산 전 과정 디지털 자동화 글로벌 기업 성장 필수 요소 부산은 걸음마 수준에도 미달 인력 양성 · IT역량 강화 절실

■인간 노하우 대신 빅데이터

이처럼 글로벌 기업에게 스마트 팩토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스마트 팩토리란 제조는 물론 설계 · 개발, 유통 · 물류 등 생

과거에는 숙련된 인간 노동자가 자신의 눈대중이나 노하우로 내리던 결정을,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것이다.

중 소 벤 처 기 업 부 가 2014~2017년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한 전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생산성은 30%, 품질은 43.5%, 납기 준수율은 15.5% 증가했다. 매출과 고용이 증가한 반면 산업재해와 원가, 불량률 등은 감소했다.

■걸음마조차 못 댄 지역 업계

하지만 아직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 수준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안타깝게도 부산의 스마트 팩토리 역량은 걸음마를 시작한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도 크게

건 지역의 질적 수준이 크게 떨어진다

정부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 먹거나 각종 공모사업에 유리한 위치를

스케처스, 독일에서 올해 ‘최고의 브랜드’ 수상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거대 풋웨어 기업, 스케처스가 2019년 슈쿠리어 어워드(Schuhkurier Awards)에서 ‘올해의 브랜드’로 뽑혔다.

“당사는 슈쿠리어에서 최초의 브랜드로 호명될 때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 시상식은 독일 전역의 리테일 파트너사의 노고를 기리는 행사”라고 스케처스의 Michael Greenberg 회장은 말했다.

“베를린 패션 주간에서 선보인 당사의 스니커즈 트렌드는 기능성 러닝화부터 캐주얼 및 콤포트화까지 모든 유형을 총망라했으며 아동을 위한 획기적인 상품도

선점하기 위해 공정의 본질적 변화와 상관없는 ‘수박 겉핥기’ 식 스마트 팩토리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부산대 이해영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지역의 일부 기업은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단기적으로 기본 시스템 구축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라며 “적지 않은 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부산대 동남권 그랜드 ICT 연구센터가 4년 간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한 동남권 33개 중소 · 중견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수준은 대부분 1단계 중후반에 그쳤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 수준은 점검, 모니터링, 제어, 최적화, 자율운영 등 5개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사실상 엑셀로 근무계획을 짜고 작업지시서를 프린트해 종이로 전달하는 등 스마트 팩토리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세계적인 전기전자 기업 지멘스는 이미 4단계 이상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한 상태다.

부산대 정보의생명공대 김종덕 교수는 “국내 극소수 대기업이 3단계 수준을 막 구축한 수준인 반면 독일과 일본 등 경쟁국들은 이미 4단계에 진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력양성 · IT업계 투자도 절실

스마트 팩토리가 지역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공정 도입만큼이나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관리란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하지만 많은 지역 업체가 시스템만 도입하고 손을 놔 버린다. 이해영 교수는 “대학과 출연기관 등이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아디다스 스피드 팩토리도 독일 정부와 아헨공대가 컨소시엄을 구축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업체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해 줄 IT업체들의 역량 강화도 지역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다

부산일보



선보였다. 당사는 독일뿐만 아니라 전세계 소비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올해로 16회를 맞는 슈쿠리어 어워드는 베스트 슈즈 리테일과 베스트 브랜드를 포함해 4가지 부문에서 가장 뛰어난 기량을 뽐낸 업체에 상장을 한다. 심사위원들은 5월에 한 자리에 모여 수상자를 가리게 된다. 이번 심사위원단은 “지난 수년간 획기적인 상

품들이 출시됐으며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들이 그 역량을 뽐내고 있다.”고 말했다.

스케처스에 대하여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스케처스는 남성과 여성, 아동을 위한 다양한 풋웨어를 디자인, 개발 및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다. 스케처스의 풋웨어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170여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스케처스는 현재 글로벌 유통사와 아시아와 이스라엘, 멕시코 등에서 합작 투자 회사를 운영 중에 있다. 그 외에도, 캐나다와 일본, 인도, 유럽, 라틴 아메리카에 자회사를 두고 있다.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PT. DONGJUNG INDONESIA는 1991년 설립 이래, 27년 동안 성실히 일해왔고 빠른 납기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Poly Bag (LDPE, HDPE, PP, EVA)
- PE Sheet (plain, embossed)
- PVC Bag
- OPP Bag
- Garbage Bag
- Zipper Bag
- Shopping Bag
- Strapping Band

Contact

Marketing Office
T. (62-21) 440 3926
F. (62-21) 440 3944

E-mail:
bhjangjk@indosat.net.id
kenleejh@gmail.com

www.dongjung.net

"Best Poly Bag manufacturer" in Indonesia since 1991

eva-mendat

Giant EXPRESS

Best Quality Fast Delivery